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19)

1. 최근 일본 수출 및 수출규제가 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¹⁾

□ [일본 동향]

- 재무성의 무역통계 발표에 의하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약 6.9% 감소함(금액기준 4,363억 달러).²⁾
 - o 일본의 대세계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금액기준 6조 6,432억엔)하고 있으며, 대한국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
 - o 주로 반도체 제조장치(-41.6%), 원동기(-47.4%), 자동차 부품(-14.8%)의 수출액이 감소
- 한편 재무성은 7.1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들 3개 소재를 포함한 화학제품 전체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지만, 통계상 품목의 개별 분류가 없어서 현 시점에서의 영향은 모른다고 설명함.
 - o 일본 정부는 7.1 조치의 영향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8월 15일 개최한 각료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7.1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영향에 관해서는)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채택³⁾
- 한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의 식료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약 1.9%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수출액은 26.4% 증가함(2019년 7월 기준).

2.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

- 8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 일본 고노 외무상과

1) 「7月の貿易収支 2か月ぶりの赤字 米中貿易摩擦で輸出減影響」 『NHK NEWS WEB』 (2019. 8. 19).

2) 財務省 貿易統計(2019), 「令和元年7月分貿易統計 (速報)」,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jp/toukei/latest/index.htm> (검색일: 2019. 8. 19).

3) 「韓国への輸出管理厳格化「日本企業に影響なし」政府答弁書」 『NHK NEWS WEB』 (2019. 8. 15).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함.⁴⁾

- 8월 16일 일본 외무성도 홈페이지에 고노 외무성 장관이 8월 20~22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다고 보도함.
- 외무성에 따르면 동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 추진을 확인함과 더불어, 지역·국제정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o 외무성은 고노 장관이 중국 및 한국과 양자 외무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보도함.⁵⁾

4) 「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연합뉴스』 (2019. 8. 19).

5) 각주 4의 연합뉴스 및 「河野外務大臣の第9回日中韓外相會議出席」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6_000614.html
(검색일: 2019. 8. 19).